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17/2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2학년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헤겔에 의하면, 존재는 자기를 전개하기 전에는 자기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존재가 주관 속에 머물러 있어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최초의 상태를 헤겔은 '즉자 존재'라고 부르고, 이 즉자 존재가 자기를 자기에서 분리하여 스스로 외화(外化)하면서 나타나는 상태를 '대자 존재'라고 한다. 여기서 외화란 존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객관화하여 자기에게 낯선 것, 자기와 대립되는 것으로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자 존재의 성립은 존재가 객관적인 의식을 통해 자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즉자 존재가 대자 존재와의 대립을 해결하고 고양된 존재가 바로 '즉자 대자 존재'이다. 헤겔에 있어 정신은 즉자 대자 존재가 되었을 때 이른바 절대정신으로 완성된다.

존재가 고양되는 과정을 '즉자-대자-즉자 대자'로 정식화<sup>\*</sup>했을 때, 이 구조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자가 스스로 분열하여 대자를 만들어 내고, 이 대립쌍이 상호 관계하여 즉자 대자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대자는 즉자의 외부에서 오는 사태가 아니고 즉자 자체가 스스로를 부정한 결과이다. 이것은 운동의 원인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분열된 둘이 상호 관계를 통해 새로운 즉자 대자를 낳는다. 이는 곧 '정립-반정립-종합'의 3단계 과정, 즉 변증법을 의미한다. 이때 종합은 정립과 반정립을 아주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새로운 형태로 살려서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증법의 특성을 헤겔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으로 정식화한다. 존재는 자신 아닌 것, 즉 타자를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자의 정신은 자기 인식을 위하여 외화하여 타자가 된 뒤 다시 새로운 정신으로 복귀하는데, 헤겔은 이처럼 새롭게 고양된 정신, 즉 즉자 대자의 정신을 절대정신이라고 보았다. 또한 절대정신이 외화하여 물질적 매체에 자신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을 관조하려고 하며 인식하고 사고하려고 하는 존재이다. 헤겔에 의하면 의식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부정, 자기 확정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하고자 하는데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은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것이 되며, 절대정신은 예술을 통해 새롭게 고양되어 더욱 구체화된 절대정신으로 거듭나게 된다.

\*정식화: 일정한 공식과 같이 일정한 명제나 정의로 규정됨. 또는 그렇게 규정함.

(나)

헤겔은 예술의 본질, 즉 예술성을 개념과 실재의 합치로 파악한다. 예술이 추구하는 개념과 그것이 표현된 실재가 서로

상응하여 참된 개념이 완전한 실재를 지닐 때 예술다움이 발현된다고 본 것이다. 이때 개념이란 예술이 표현하려고 하는 정신이며, 실재란 개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헤겔은 예술성이 완전히 충족되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를 이념상이라고 규정하면서 개념과 실재의 관계에 따라 예술을 상징, 고전, 낭만이라는 세 가지 예술 형식으로 구분한다.

㉠ 상징적 예술 형식은 개념과 실재가 서로 부적합한 예술 형식이다. 이 형식은 개념과 실재의 합치를 추구하지만, 참된 개념과 완전한 실재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헤겔은 상징적 예술 형식에서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은 아직 내용에 적합한 개별적 형태로 표현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자연 대상으로 대체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례로 헤겔은 몸통은 사자이고 얼굴은 인간인 고대 이집트의 스팅크스를 제시한다.

㉡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는 개념과 실재가 완전하게 일치함으로써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된다. 고전적 예술 형식은 상징적 예술 형식이 지니고 있던 이중적 결합, 즉 개념의 추상성과 개념과 실재의 불일치 문제가 극복된다. 이때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의 참된 실재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신들이 개별적인 인간 신체로 표현된 것을 헤겔은 그 사례로 제시한다. 헤겔에 의하면, 예술의 아름다움은 고전적 예술 형식에서 가장 완전하게 실현된다.

㉢ 낭만적 예술 형식은 고전적 예술 형식이 성취한 아름다움과 예술성이 해체된 것으로, ㉠ 개념과 실재의 조화 상태를 초월한 것이다. 헤겔은 고전적 예술 형식은 완전한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전적 예술 형식이 무한한 개념을 인간의 형상이라는 감각적이며 유한한 실재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낭만적 예술 형식에서는 개념과 실재가 다시 부적합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상징적 예술 형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헤겔은 개념이 자기 심화를 통해 오로지 자기 자신 속에서 실재를 찾으므로써, 예술 형식은 감각적 표현을 포기하고 외적인 것과의 합치에서 벗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체적 개념을 어떻게 감각적으로 형태화할 것인가는 이 형식 내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낭만적 예술 형식은 개념을 실재를 통해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는 예술 자체의 한계를 인식하는 예술 형식으로, 헤겔은 음악, 회화, 시에서 개념이 실재를 넘어선 상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무한한 개념을 유한한 실재로 표현해야 하는 예술의 한계를 초월하여 개념이 자신 안에서 실재를 찾아 표상<sup>\*</sup>화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상(表象): 지각(知覺)에 의하여 의식에 나타나는 대상의 상(像).

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정신의, (나)는 개념의 자기 심화 과정을 통해 헤겔이 제시한 미적 개념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 ② (가)는 존재의 자기 인식 과정을 통해, (나)는 개념과 실재 사이의 관계를 통해 헤겔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존재가 지닌 특징을, (나)는 각 예술 형식의 이념상을 분석하여 헤겔의 예술관이 성립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다.
- ④ (가)는 정신의 질적 변화를, (나)는 형상화된 실재의 양적 변화를 중심으로 헤겔이 제시한 예술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
- ⑤ (가)는 존재의 자기 인식이, (나)는 개념과 실재의 적합성이 변화한 과정을 중심으로 헤겔의 예술론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즉자 존재의 정신은 자기실현을 통해 절대정신으로 완성된다.
- ② 즉자의 정신이 외화한 뒤 다시 새로운 정신으로 복귀할 때 그것은 절대정신이 된다.
- ③ 존재가 스스로에서 파생된 타자를 통해 자기 인식에 도달했을 때 절대정신이 성립된다.
- ④ 절대정신이란 즉자 존재의 주관적 정신과 대자 존재의 객관적 정신 간의 대립과 해결을 통해 고양된 정신이다.
- ⑤ 즉자 대자 존재의 절대정신이 감각적으로 드러나서 예술의 아름다움이 실현되면, 예술은 타자의 정신을 절대정신으로 고양한다.

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개념과 실재가 모두 완전하지 않은 예술 형식으로, 예술다운 예술이 아직 되지 못한 상태이다.
- ② ㉡은 이념상이 온전히 실현되어 개념에 의해 형상화된 실재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상태이다.
- ③ ㉢에 나타나는 개념과 실재의 부적합 상태는 정신을 감각적 형상을 통해 충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초래된다.
- ④ ㉠과 ㉢에서는 개념과 실재가 괴리되는 반면 ㉡에서는 참된 개념이 가장 완전한 실재를 지니게 된다.
- ⑤ ㉡에서는 이념상이 예술적으로 완전히 아름다운 상태인 반면 ㉢에서는 이념상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된다.

9.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절대정신의 무한성이 물질적 매체의 유한성을 넘어 감각적으로 형상화된 상태
- ② 절대정신과 그것이 외화하여 형상화된 물질적 매체가 서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상태
- ③ 절대정신의 동일성과 물질적 매체의 비동일성이 변증법적 종합을 통해 동일성을 이룬 상태
- ④ 예술을 통해 고양된 절대정신의 구체성이 물질적 매체의 형상성을 초월하여 스스로 표상화된 상태
- ⑤ 절대정신을 형상화할 수 있는 물질적 매체가 존재하지 않아 예술을 통한 절대정신의 고양에 불가능한 상태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예술의 개념이 실재에 적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신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신은 최상의 본질'이라고 답한다면 이 대답은 '최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질문은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답변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헤겔은 진실한 상태에 있는 신은 그 자체로 구체자로서, 구체자란 보편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주체성과 특수성을 자체 속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또한 그는 어떤 것을 예술로 표현할 때 그것의 개념만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실재도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인 개념에 감각적인 실재가 상응하려면 이 실재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① (가)에서 정립과 반정립의 상호 관계가 변증법적 종합의 계기가 되는 것은 양자 간의 상호 관계가 보편성을 특수성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이겠군.
- ② (가)에서 즉자 존재가 대자 존재와의 대립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즉자 대자 존재가 되는 과정은 정신이 구체자가 되어 절대정신으로 성립되는 과정이겠군.
- ③ (나)에서 고대 그리스 신상은 구체자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이 적합하게 표현될 수 있는 감각적 구체자의 사례이겠군.
- ④ (나)에서 상징적 예술 형식이 이중적 결합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재와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겠군.
- ⑤ (나)에서 이념상은 개념의 구체성과 감각적 실재의 구체성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로, 예술의 아름다움은 구체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감각적 실재로 형상화될 때 달성되는 것이겠군.